

**로마서 8 장에 나오는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생활함**

3/13 월요일

아침의 누림

롬 7:24-25

24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내겠습니까?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롬 8:2, 9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딤후 4:22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빌 1:19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 장에서는 아담 안에 있고, 6 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7 장에서는 육체 안에 있고, 8 장에서는 영 안에 있다. 우리는 육체 안에 있을 때 아담을 체험하고, 영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5 장의 아담은 오직 7 장의 육체 안에서만 체험할 수 있고, 6 장의 그리스도는 오직 8 장의 영 안에서만 체험할 수 있다. ... 갓난아기는 틀림없이 아담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린 아기에게서 아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체험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육체 안에 있는 것을 더욱더 체험하게 된다. ... 우리는 아담 안에서 가진 것을 육체 안에 있을 때 체험한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영 안에 있을 때만 체험할 수 있다.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체험한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아담의 풍성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

성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34 장, 434-43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8 장은 사람들을 분발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또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장은 필사적으로 해방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장이다. 우리는 7 장의 마지막 부분에 의해 이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은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내겠습니까?”라고 부르짖는다. 바울은 필사적이었다. 그는 극도로 추구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해방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 그는 자신이 시도한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선을 행하는 행함은 없었다. 그는 필사적인

사람이었다. 8 장은 그러한 사람을 위한 장이다. 8 장은 1 장에 있는 사람이나 2 장에 있는 사람을 위한 장이 아니라, 7 장의 끝부분과 8 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사람을 위한 장이다. 그러한 필사적인 부르짖음 후에 응답이 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왜 유죄판결이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죄판결이 없는가? 생명의 영의 법이 바울 안에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로마서 8 장은 사람을 분발시키거나 뒤로 물러난 데서 돌아오도록 이끌지 않는다. 이 장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이들은 모두 필사적인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들은 구원받고 주님을 추구하고, 추구는 길에서 실패한 후 필사적이게 되었다. ... 우리는 필사적인 이들이어야 한다. 이 장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분발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 이 장은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제시한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필사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조망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조망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 우리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어떤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조망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늘날 ...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법이시라는 것에 대해 분명한 조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법이신 하나님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신다. ... 오늘날 그분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법이시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법이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특별한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 나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 안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옛 방식으로 기도할까 봐 염려된다. 여전히 여러분은 성질을 내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주님께 구한다. ... '전기'가 이미 들어왔기에,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 달라고 '발전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여러분 안에 설치되어 계심을 참으로 깨달았는가? ... 그분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께 협력해 드리는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0년, 1권, 온전케 하는 훈련, 36장, 542-544, 546-547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0년, 1권, 온전케 하는 훈련, 29-40장;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13-16, 35-39, 62, 67장

3/14 화요일

아침의 누림

롬 8:9, 11

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속 12:1

1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와 부담의 말씀이다.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는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

엡 2:22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사 66:1-2

1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건축할 집이 어디 있겠으며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

2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 여호와와 선포이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을 굶어보리니 곧 가난한 사람과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과 내 말에 떠는 사람이다.

엡 6:17-18

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로마서 8 장은 성경의 초점과 우주의 중심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일해 넣으시는 것이다.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해 우주를 창조하셨다. 로마서 8 장, 특별히 1 절부터 17 절까지는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권면이나 권유나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계시와 체험에 따라 이 부분을 썼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2년, 1권, 로마서 8 장에 따른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에 대한 믿는 이들의 체험, 5장, 119쪽)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8 장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세우신 후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획득하신 것을 말한다. 먼저 하나님은 선민을 소유하시기 위해,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의 일을 완성하셨다. 결국 그분은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육체 되심을 이루셨다. 그런 후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체험하기 위해 인간 생활을 통과하셨다. 그 후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고 옛 창조물을 끝내시고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다. 그분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음에서 나오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다.

육체 되심 안에서 그분은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물질적인 몸을 입으시고 육체가 되셨다. ...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죽음과 생명을 나누어 주는 부활 후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영이 되셨다 (고전 15:45 하). ... 이러한 두 필요를 위해 하나님은 두 모습을 취하셨다. 첫째는 구속의 성취를 위한 육체의 모습이고, 둘째는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한 그 영의 모습이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 안으로 들어가시고, 승천 안에서 사람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의 권위를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되시고, 관을 쓰시고, 보좌에 앉으시어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셨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가장 높은 이름과 칭호를 받으셨다. 이분께서 바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얻으시고 달성하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다. 그러한 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도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서 부활과 승천 안에 계신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완전히 과정을 거치신 완성되신 하나님을 본다. 그분은 모든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사람이 되심과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을 포함한 그분의 경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 로마서 8 장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성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로마서 8 장에서 삼일 하나님은 그 영이 되셨다. 9 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시고, 11 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라 불리신다. 그러므로 그 영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영 하나님을 포함하신다. 그분은 삼일 하나님의 삼일 영이시다.

삼일 하나님은 그 영의 형태로 우리에게 도달하신다. 삼일 하나님의 적용과 도달하심하신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이시다. 로마서 8 장에서 우리는 적용되시고 도달하시는 삼일 하나님,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시어 그 영이 되신 삼일 하나님을 본다. 이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갈망하시는데, 이는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차지하고 완전히 점유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며 그것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다.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작용하는 ... 법칙이 있다. 그것은 내주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풍성인 생명의 영의 법이다.

이 모든 풍성을 누리는 길은 다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롬 8:4).

우리는 또한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어야 한다(롬 8:5-6). 그 영의 일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이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일들이 아닌 다른 것들에 두지 않는 것은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가 완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 위한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2년, 1권, 로마서 8장에 따른 그

영이신 삼일하나님에 대한 믿는 이들의 체험, 5장, 119-12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2년, 1권, 로마서 8장에 따른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에 대한 믿는 이들의 체험, 5장; 1982년, 1권,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 영을 따라 행함, 3, 5장;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 5장

3/15 수요일

아침의 누림

롬 8:10-11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계 21:6

6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

계 22:1-2, 14, 17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걸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로마서 8 장 2 절에서 ‘법’은 모세의 율법이나 어떤 특정한 계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 바울은 생명의 영의 법의 기능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다. 마치 중력의 법칙이 사물들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소화의 법칙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되게 하듯이, 우리 안에 분배된 신성한 생명에도 하나의 법이 있다. 이것은 신성한 분배가 법에 의해, 곧 자동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원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 법이 작용함으로써 신성한 생명의 본질, 요소, 풍성이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한 놀라운 법을 소유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성한 법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 신성한 법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 때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얻게 될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3년, 2권,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 22장, 463-46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8 장 10 절에서 영이 살아 있다고 말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영이 생명, 또는 헬라어로 ‘조에’라고 말한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조에’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조에’가 되게 한다. 이제 삼일 하나님께서 생명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도 생명이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온 우주에, 특히 사탄에게 우리의 영이 생명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인 우리의 영이 '조에'라고 외칠 것이다. 오, 이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성질을 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성질을 억누르지 말라. 그 대신 단순히 이렇게 선포하라. "내 영은 '조에'이다!" 마찬가지로,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따지지 말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여러분의 영이 '조에'임을 말해 주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 낼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의 영은 '조에'이다!

로마서 8 장 6 절을 살펴보자.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생각 역시 '조에'가 될 수 있음을 본다.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 혼을 대표하는 우리 생각은 '조에'가 된다. ... 이것이 바로 신성한 생명이 우리 혼 안으로 분배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한담을 하려고 하는가?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라. 성질을 내리는 유혹을 받는가?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라.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은 삼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으로 분배될 때 우리의 영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또한 영에 둔 생각이 생명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로마서 8 장 11 절은 하나님의 분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계시한다. ... 이 절은 '조에'가 그 영을 통하여 우리 죽을 몸 안으로 분배될 수 있음을 계시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생각이 '조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조에'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삼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존재의 세 부분 안으로 분배되는 것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주님,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제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의 영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을 영에 둔다면, 저의 생각도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을 얼마나 찬양하는지요! 당신의 내주하시는 영을 통하여 당신의 '조에' 생명은 심지어 저의 죽을 몸 안으로도 분배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인해 당신께 경배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우리가 참여하고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신성한 '조에'입니다. 먼저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의 중심인 우리의 영 안으로 분배하십니다. 그분은 이 중심에서 우리의 생각 안으로 '조에'를 확장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조에'로 적시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우리 죽을 몸 안으로 확장되시며, 그럼으로써 우리 온 존재를 '조에'로 만드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에'의 사람들이 된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62 장, 703-70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3년, 2권,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 21-24 장; 신성한 분배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 1, 3-7 장

3/16 목요일

아침의 누림

롬 8:2, 4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골 4:2

2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시 27:1

1 여호와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시 119:15

15 저는 주님의 법도들을 읊조리며 주님의 길들을 존중하렵니다.

사 37:31

31 유다의 집 사람들 중에 피신하여 남은 이들은 다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마 6:6

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영의 법, 곧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안으로 분배되셨으며 지금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삼일 하나님하신 바로 그 법을 누릴 수 있다. ...이 법과 협력하는 길은 영 안에서 행하고 단순히 영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것은 신성한 전기를 켜는 것이다. 영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스위치를 계속 켜 놓는다. ...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법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협력하는 길이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67 장, 757-75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기도는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이며, 기도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을 얻는다. 하나님은 실재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분을 접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얻을 수 있다. ... 기도는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에 달려 있다. ... 시편 27 편 1 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시라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말한다. 여기에 두 가지 다른 표현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성취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이라는 의미이다. ...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빛도, 구원도 없다.

다윗은 체험 가운데서 계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빛이시고 그의 구원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것에 근거하여, 그는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 그것을 구하리니 / 내 평생에 / 여호와와 집에 거주하며 /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시 27:4)라고 말했다. 다윗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흡수하기를 원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접촉하고 흡수했다. 그는 하나님을 접촉할 때 즉시 속이 밝아졌고, 하나님을 흡수할 때 즉시 그의 안에 구원을 받아들였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의 안에서 그의 빛이 되시고 그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한숨지으면서, 자신이 무능하고 약하며 일어날 수 없고 볼품없으며 목마르다는 것을 자백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으며 형제자매를 만나도 교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자백할지도 모른다. ... 우리의 내적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영어 찬송가 1048 장 참고)라는 찬송이 있다. ... 이것은 우리의상태를 개선하거나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려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상태 그대로일수록 더 좋다. 조금도 개선할 필요가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으며, 준비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혼란스럽고 슬프고 할 말이 없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믿는 이는 반드시 매일 상당한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배워야 한다. 삼십 분에서 한 시간 정도가 좋다. 그렇지만 규칙을 정하지 말라. 규칙을 정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르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흡수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과 힘과 승리와 열심과 일어설 힘 등 많은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 단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접촉하기만 한다면,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볼 것이다. ...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다면, 그분께서 빛이 되실 것이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분께서 능력이 되실 것이다. ... 그분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이시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많이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르면서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묵상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인격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우리의 상태나 주변 환경을 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기도의 의미와 목적, 1 장, 14-17, 19-20, 22-2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기도의 의미와 목적, 1-4 장;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44, 52-53, 56-57 장

3/17 금요일**아침의 누림**

시 27:4, 8

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8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제 마음으로 주님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요 15:7

7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전 3:9

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살전 5:17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시 62:7-8

7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다네.

8 백성들아!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표현되시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말하거나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 18 장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두고 기도했으며, 또한 소돔을 두고 기도했다(23-33 절). 그러나 이 장의 끝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33 절)라고 말한다. 비록 기도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지만,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이셨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치신 분이시며 의도를 표현하신 분이셨다.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자신의 말을 하거나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며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게 하는 것이다.(기도의 의미와 목적, 1 장, 24-2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 시편 27 편 8 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원칙이다. ...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밖으로 말해 내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다. ...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표현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의 어떤 특별 집회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거나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적 상태와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황에 대해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하심을 느낄 것이다. 이때 우리는 하려던 기도를 멈추어야 하고, 교회의 부흥이나 특별 집회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하며, 내적인 느낌을 따라야 한다. ...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너는 육체로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신다는 느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저는 육체로 가득합니다.”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고, 우리의 내적 느낌을 기도로 말해낸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서 일부만 내적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부르짖고 싶은 것을 기도에 많이 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간청하고 싶은 유혹을 받은 것이다. ... 어떤 때에 우리는 심지어 내적 느낌을 전혀 만지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해 주시기를 구한다. 이런 기도는 백 퍼센트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이다.

시편 27 편 4 절에서 다윗은 ‘부르짖는’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간청하는’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으며, ‘여쭙는’이라고 말했다. 여쭙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 장에서 한 기도는 여쭙는 것에 대한 좋은 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혹시 그 성에 의인 오십 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곳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23-24 절)라고 말씀드렸다. 우리라면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이다.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소돔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 성에 의인 오십 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그 성에 의인 오십 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한 의인 사십오 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쭙었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에게 알려 주셨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 성에 의인 열 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쭙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28-32 절).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었다.

가장 좋은 기도, 가장 가치 있는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이다. ... 부르짖는 것은 사람의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기도는 여쭙는 것이다. 여쭙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린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된다.

결론적으로,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과하시고 하나님께서 표현되시게 해야 한다.(기도의 의미와 목적, 1 장, 25-2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0 장; 위트니스 리

고봉메시지, 1 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1 장

3/18 토요일

아침의 누림

롬 8:6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말 2:15

15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지 않았느냐? ... 그러니 너희의 영을 주의하고 누구도 젊어서 얻은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롬 8:16, 28-29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롬 12:2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고후 2:13

13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사탄은 우리 몸의 지체들 안에 거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신다. 이것은 우리를 로마서 8 장 6 절로 인도한다. 이 절은 참된 비결을 담고 있다. 이 절에는 세 가지 것, 곧 생각과 육체와 영이 있다.

이제 우리의 체험은 우리 자신 곧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생각을 육체 즉 사탄에게 둔다면, 그 결과는 죽음이다. 아담은 지식나무의 열매에 참여했을 때 이렇게 했으며, 동일한 결과인 죽음을 맛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생명이신 하나님께 둔다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육체를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죄의 법을 패배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만 그 영과 함께 서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 안에서의 구출이다. 우리는 영과 함께 서고 생각을 영에 두며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구출받을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4 년, 2 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빛 안에서 본 신약의 개관, 11 장, 347-34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8 장 6 절의 비결은 우리 모두가 꼭 배워야 하는 비결이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지낸 후, 이제 나는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도 이 가르침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주님 자신에 관한 가르침들, 즉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가르침들은 매우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과 관련해서는 로마서 8 장 6 절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영에 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배워야 한다. ... 우리는 전기 기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전기 기구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방법만 알면 된다. 우리가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일에서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연구해야 하지만, 참된 비결은 로마서 8 장 6 절에 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로마서 8 장 6 절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거의 성취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해 왔지만, 우리의 영적인 체험과 관련하여 로마서 8 장 6 절만큼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제가 당신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저의 노력과 분투를 내려놓도록 도와주십시오. 악이나 유혹을 이기려고 제 스스로 어떤 것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제가 항상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과 함께 서 있으며 당신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결코 자신을 교정하거나 구출하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항상 제 자신을 당신께 맡기고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체험은 달콤하고 매우 유용하다. 그 유용성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 집에는 전기 기구를 언제든지 콘센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가 들어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즉시 주님께 ‘플러그를 꽂아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대단히 유용하시기 때문이다. 전기가 집 안에 들어와 있고 심지어 집에서 가장 깊고 숨겨진 방에도 들어와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에 들어와 계신다. 비록 신성한 전기가 대단히 유용할지라도,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신성한 전기를 기꺼이 사용하려는 자원함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 비결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항상 기꺼이 신성한 전기를 사용하고 ‘우리 자신을 콘센트에 꽂기’를 원해야 한다. 우리가 수많은 메시지를 들을지라도, 그 모든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참된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생각을 영에 두고 항상 이 실재 안에서 살기를 실행해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2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빛 안에서 본 신약의 개관, 11장, 348-351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2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빛 안에서 본 신약의 개관, 11장

- 2 아담 안에서는 죄 안 지어도 사형 선고 받은 죄인인 우리 주 안에 있을 때 선행 안 해도 이미 의롭다하심을 받았네.
- 3 육체 안에서 나 노력 안 해도 아담의 죄 본성 표현하게 돼 영 안에서 노력 열심 없어도 주님처럼 살고 왕 노릇 하네.
- 4 주와 함께 죽어 아담 떠나고 주와 함께 살아 생명 얻었네 육체 생각하면 옛 아담 사나 영을 생각하면 생명 확증돼.
- 5 영만 생각하면 구원 받으리 영만 생각하면 주가 나타나 영만 생각하면 이길 수 있네 영만 생각하면 경주 마치리.
- 6 영만 생각하면 십자가 알고 주의 부활 능력 흘러가리라 영만 생각하면 주를 살게 돼 내 속에서 주의 생명 성숙해.
- 7 영 안에서 주 내 생명 모든 것 강건하게 하고 축복 주시네 영 안에서 살 때 거룩하게 돼 삼일 하나님 내 맘에 움직여.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9 여러분은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듣고 본 것들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10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마침내 새롭게 꽃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를 위한 생각은 늘 해 왔으나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11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2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읽을 말씀
기도의 의미와 목적, 1-4장;

찬송: 593 (英) 아담에 속한 것 (中:435)

1 아담에 속한 것 죄와 죽음뿐 주 안에서 의와 생명을 얻네
육체에 거할 때 아담 표현해 영 안에 있을 때 주님 나타내.

3/19 주일

아침의 누림

- 빌 4:4-13**
- 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 5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 7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1:1-17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2장
 - 2 단계-주제별 연구
예수 그리스도 - 다윗의 자손
로마서 1:3
Crystallization-study of the Humanity of Christ, chs. 4-6
- churchinnyc.org/bible-study